

농어촌公 보령지사, 협력업체와 소통하며 청렴 다짐

✎ 송인용 기자 | ㉠ 승인 2025.08.29 | ㉡ 13면

향후 계약업무·제도 개선방안 논의도



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제공

[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(지사장 김덕규)는 29일 계약업무에 관한 신뢰 강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협력사와 청렴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.

금번 청렴소통 간담회에는 보령지시장을 비롯한 농지은행관리부장, 농어촌사업부장, 계약담당자를 비롯하여 시공사, 납품업체 등 협력사 10개사가 참여하여, 계약수행 중 경험한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, 향후 계약업무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.

이날 간담회에서는 협력사들이 갑질, 부패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반부패 신고제도, KRC 공정거래 협약 등 청렴계약제도에 대해 안내하였으며, 특히 최근 급증하는 기관 사칭 전화사기(보이스피싱)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.

간담회에 참여한 협력사 대리인은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, 협력사가 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약제도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.

김덕규 지사장은 “협력업체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지역 농어촌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동반자로서, 협력업체가 계약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고, 금일 청취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전했다.

송인용 기자 songiy@cctoday.co.kr



송인용 기자 songiy@cctoday.co.kr